2025년 12월 8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증시 방향성의 키를 쥐고 있는 연준과 AI

한국 증시는 1) 12월 FOMC 이후 시장 금리 변화, 2) 미국 10월 JOLTs, 중국 11월 수출입 등 주요 경제지표, 3) 오라클, 브로드컴 실적 이후 AI 업종 고평가 및 수익성 전망 변화, 4) 국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로 인한 현선물 수급 변동성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눈치보기 장세에 돌입할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3,900~4,180pt).

주 초반~중반까지는 별 다른 이벤트가 없지만, 주 중반 이후부터는 연준, AI 관련 메인 이벤트를 한꺼번에 치러야 하는 시장 환경에 직면할 예정. 국내 증시에서는 11일(목)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기에, 현선물 시장의 수급 변동성 확대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 더 나아가, FOMC, 오라클, 브로드컴 실적 발표 직후 시장 참여자들간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지수 방향성을 일시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 따라서, 증시 포지션 구축은 일간 단위 분할 베팅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

|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2월 5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국내 증시는 주 초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 속 글로벌 위험선호 심리 개선에 힘입어 상승세 지속. 이후 주 후반 자동차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세 유입된 결과 코스피는 상승폭 확대했으나, 바이오 악재 속 투자심리 악화된 코스닥은 상승폭 제한 (KOSPI +4.42%, KOSDAQ +1.32%)

주 초반 국내 증시는 전 주 금리 인하 기대 속 상승한 미 증시, 11월 반도체 수출 호조 속 업종별 차별화 흐름 연출. 특히,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 반영되며 바이오, 2차전지 대형주 중심으로 선제적인 자금 매수세 유입된 결과 코스닥은 주 초반 1.1%대 상승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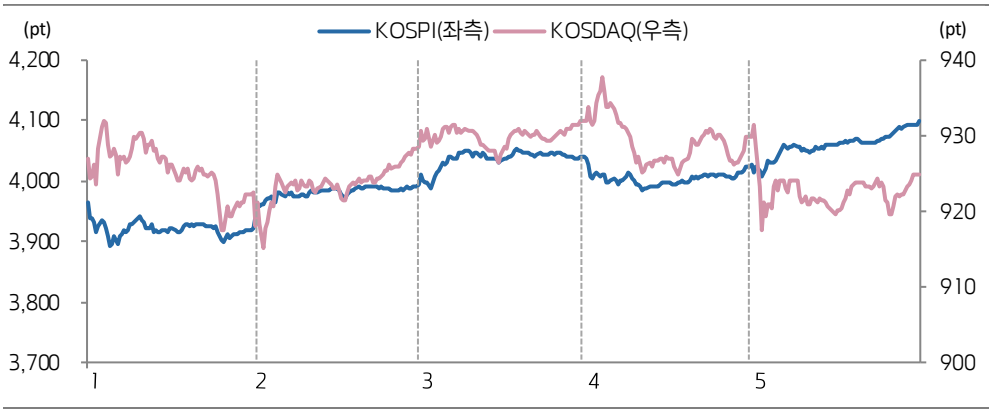
미 증시도 12월 FOMC, 브로드컴, 오라클, 마이크론 실적 등을 앞두고 지수는 뚜렷한 방향성 부재한 채 종목 장세 연출. 다만, 12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유지. 11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지연됨에 따라 ADP 민간 고용의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11월 ADP 민간 고용은 역성장(3.2만 명 감소 vs 전월 수정치 4.7만 명) 기록, 고용 둔화 시그널 속 금리 인하 기대감 확대 요인으로 작용. 그 외에 친 트럼프 인사인 케빈 해싯 국가경제 위원회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에 유력하다는 소식도 금리 인하 기대감을 확대시키는 기제로 작용.

주 후반 글로벌 증시 위험선호 심리 개선 속 국내 증시도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 기관 자금 유입되며 코스피는 상승폭 확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AI에 이어 로봇 산업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국내 로봇주 일제히 반등한 점이 특징적. 그 외에 미국 정부의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관세율 15% 소급 인하,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 피지컬 AI 및 자율주행 모멘텀 등 연이은 호재성 뉴스플로우가 지속된 결과 저평가 영역에 있던 자동차 업종도 코스피 상승을 견인.

업종별로 건설(+7.9%), 운송장비/부품(+7.52%), 운송/창고(+7.02%), 유통(+5.72%), 전기/전자(+5.58%)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음식료/담배(-2.65%), 오락/문화(-1.99%), 전기/가스(-0.06%), 제약(+0.29%), 섬유/의류(+0.77%)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인(+2조 172억원)은 제조(+20,056억원), 전기/전자(+14,177억원), 운송장비/부품(+6,260억원),순으로 순매수, 기관(+2조 1,807억원)은 제조(+14,250억원), 전기/전자(+8,960억원), 운송장비/부품(+6,779억원) 순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12월 8일	월	중국	무역수지	11월	$103.72t	$90.07b
		EU	센틱스 투자자기대지수	12월	-	-7.4
		일본	GDP 성장률 (YoY, 최종치)	3분기	2.8%	2.8%
12월 9일	화	미국	NFIB 소기업낙관지수	11월	-	98.2
		회의	**RBA 통화정책회의**	12월	-	3.60%
12월 10일	수	한국	**실업률**	11월	-	2.6%
		일본	PPI (YoY)	11월	2.7%	2.7%
		중국	PPI (YoY)	11월	-2.0%	-2.1%
		중국	CPI (YoY)	11월	0.7%	0.2%
		미국	**JOLTs 구인건수**	10월	-	7,227K
12월 11일	목	회의	**FOMC 금리 결정 (한국 시간 오전 4시)**	12월	3.50-3.75%	3.75-4.00%
		파생	한국 선물·옵션 동기 만기일			
		공개	OPEC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			
12월 12일	금	한국	수출 물가지수 (YoY)	11월	-	4.8%
		한국	수입 물가지수 (YoY)	11월	-	0.5%
		실적	**브로드컴, 코스트코, 룰루레몬**			
		지수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			
		발언	**필라델파아 연은 총재,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1) 12월 FOMC 이후 시장 금리 변화, 2) 미국 10월 JOLTs, 중국 11월 수출입 등 주요 경제지표, 3) 오라클, 브로드컴 실적 이후 AI 업종 고평가 및 수익성 전망 변화, 4) 국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로 인한 현선물 수급 변동성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눈치보기 장세에 돌입할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3,900~4,180pt).

5일(금) 미국 증시는 9월 근원 PCE 안도감(YoY 2.8% vs 컨센 2.9%), 12월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 둔화(4.1% vs 컨센 4.5%)에도, 미 정부의 엔비디아(-0.5%)에 대한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우려, 12월 FOMC 관망심리 등으로 제한적 상승(다우 +0.2%, S&P500 +0.2%, 나스닥 +0.3%).

이번주에도 10월 JOLTs, 뉴욕 연은의 소비자 기대인플레이션 등 주요 지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12월 FOMC(한국시간 11일) 전망이 급변할 가능성 상존. 다만, 그간 확보한 고용, 물가 데이터(고용 둔화 지속 + 인플레 압력 제한)를 고려 시, 12월 금리 인하를 베이스 경로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적절(Fed Watch 상 12월 인하확률은 80%대 중후반).

이번 12월 FOMC에서는 금리인하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내년 점도표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 지난 9월 FOMC 점도표 상으로 연준은 26년 기준금리 중간값을 3.4%로 제시하면서, (이번 12월 FOMC 인하를 가정할 경우) 내년 최소 1회 인하를 시사했던 상황. 하지만 현재 Fed Watch 상 내년 2회 인하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등 26년 금리 경로를 놓고 연준과 시장의 간극이 벌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9월~10월 FOMC 의사록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연준 내 정치 파벌이 형성되면서 의견 대립도 격화되고 있는 상태. 이는 내년 통화정책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듦에 따라, "시장 금리 변동 -〉 주식시장 내 밸류에이션 상 할인율 급변 -〉 주가 변동성 확대"라는 부정적인 피드백 루프에 빠지게 만들 가능성을 내포. 즉, 이번 FOMC는 점도표(+26년 경제전망)의 변화 여부, 고용시장 하방 위험에 중점을 두면서 금리인하를 지지했던 파월 의장의 입장 변화 여부가 중요. 이를 통해 연준 내부적인 갈등, 연준과 시장의 갈등이 완화되는지가 연말까지 증시 방향성을 좌우하는 주요 기제가 될 것으로 판단.

증시에서는 미국 AI주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 포함 코스피 전반적인 증시에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오라클(한국시간 11일 새벽)과 브로드컴(한국시간 12일 새벽) 실적이 메인 이벤트. 오라클은 9월 이후 CDS 프리미엄이 50bp대에서 110bp대로 2배 이상 급등함에 따라, AI산업 수익성 불안의 단초를 제공했던 상황. 이를 감안 시, 이번 실적에서 가이던스 컨센 상회 여부 이외에도,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50%대 성장률 유지 여부, 최근 대규모 회사채 발행에 대한 현실성 있는 자본조달 계획 제시 등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

반면, 브로드컴은 제미나이 3.0 호평 이후 부각되고 있는 알파벳의 TPU 성장 내러티브에 힘입어 최근 신고가 경신했던 상태. 여타 AI주들이 전고점 탈환에 빈번히 실패했던 것과 달리, 브로드컴의 주가는 호조세를 누려온 점을 미루어 보아, 이번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높은 것으로 보임. 결국, 3분기 실적 및 내년도 가이던스가 얼마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지가 관건. 이들 실적 결과를 통해 시장은 반도체 등 AI 하드웨어 업체들만 성장의 과실을 누릴지, 아니면 하이퍼스케일러, 소프트웨어, 전력기기 등 여타 AI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그 과실을 누릴지를 가늠해 나갈 것으로 판단.

(다음 페이지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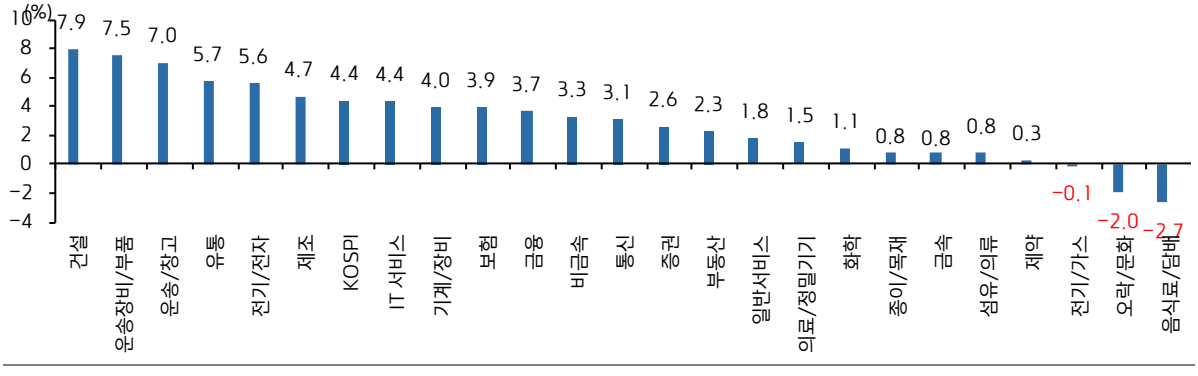
이처럼 주 초반~중반까지는 별 다른 이벤트가 없지만, 주 중반 이후부터는 연준, AI 관련 메인 이벤트를 한꺼번에 치러야 하는 시장 환경에 직면할 예정. 국내 증시에서는 11일(목)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기에, 현선물 시장의 수급 변동성 확대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 더 나아가, FOMC, 오라클, 브로드컴 실적 발표 직후 시장 참여자들간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지수 방향성을 일시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 따라서, 증시 포지션 구축은 일간 단위 분할 베팅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종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4,100.05	1.8	4.4	2.4	70.9
대형주	4,231.07	2.0	4.6	2.0	77.1
중형주	3,849.37	0.7	2.7	4.2	44.8
소형주	2,545.59	1.0	2.7	5.0	21.6
코스피 200	580.81	1.9	4.8	2.7	82.8
코스닥	924.74	-0.6	1.3	2.5	36.4
대형주	2,299.23	-1.4	-0.5	1.4	42.5
중형주	865.93	0.0	3.0	4.7	46.8
소형주	2,565.08	0.3	2.4	2.1	15.2
코스닥 150	1,580.75	-1.6	-0.9	0.7	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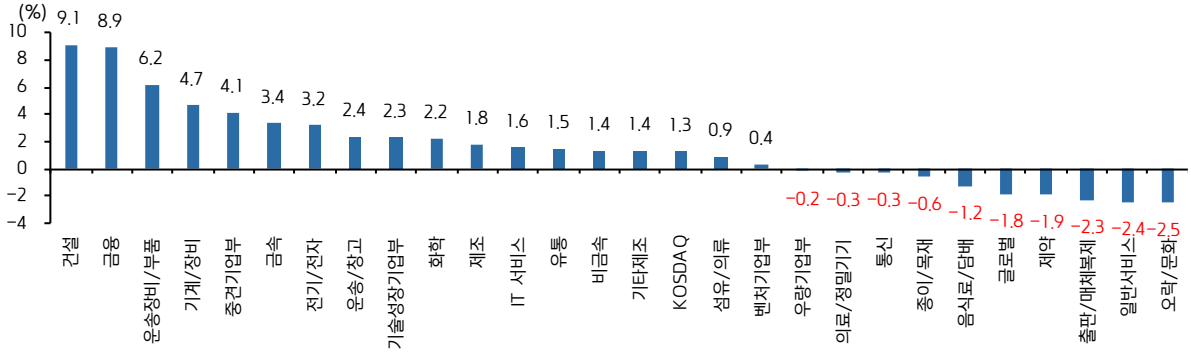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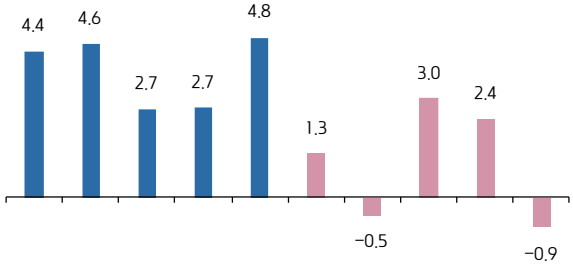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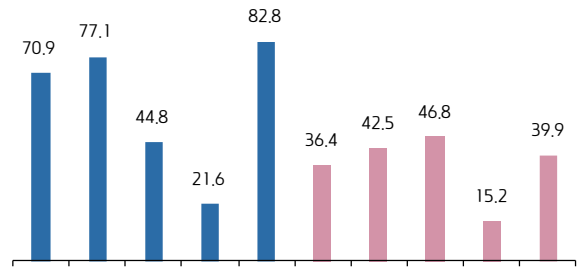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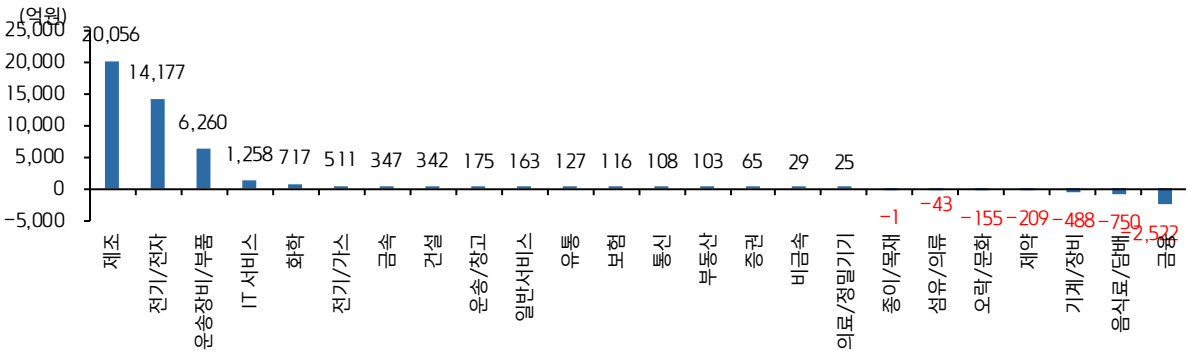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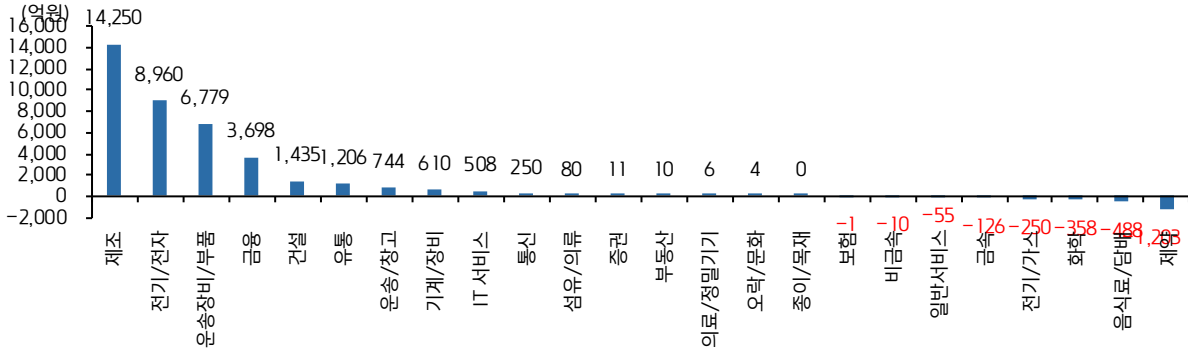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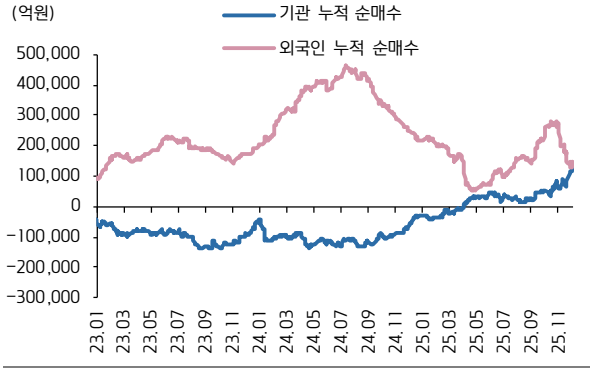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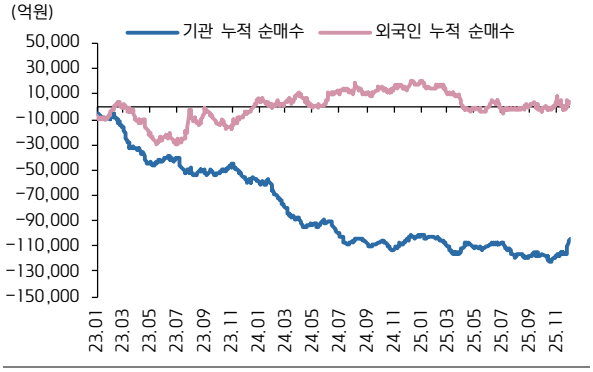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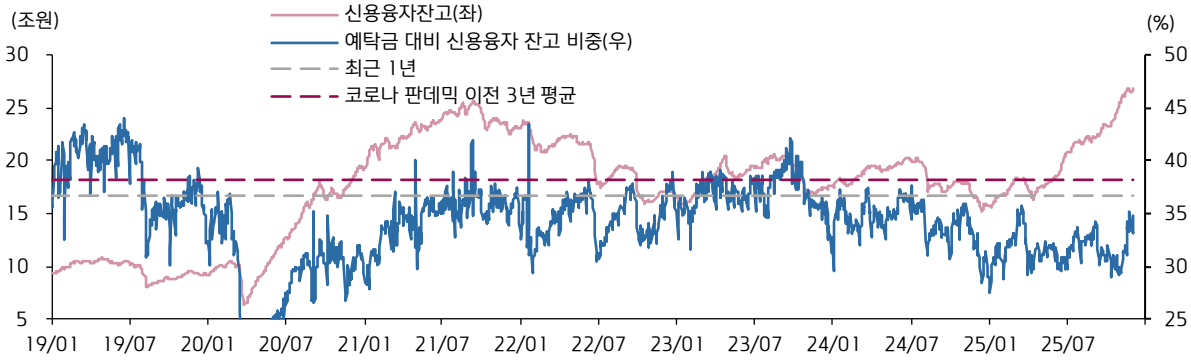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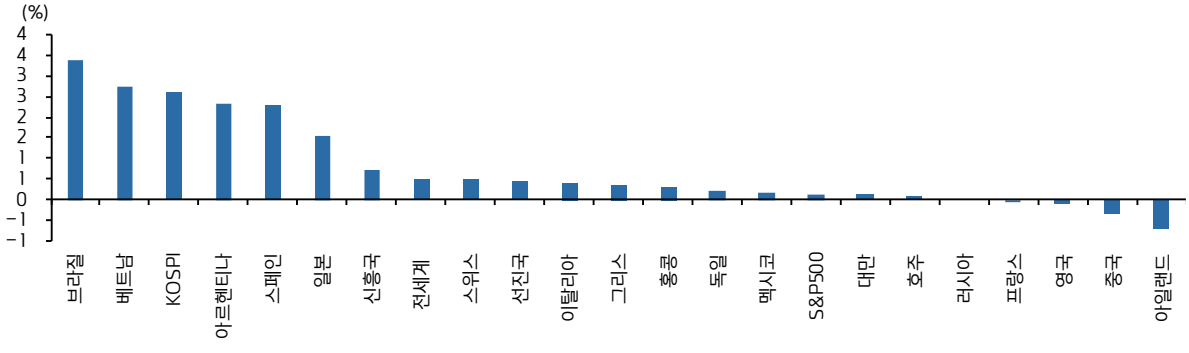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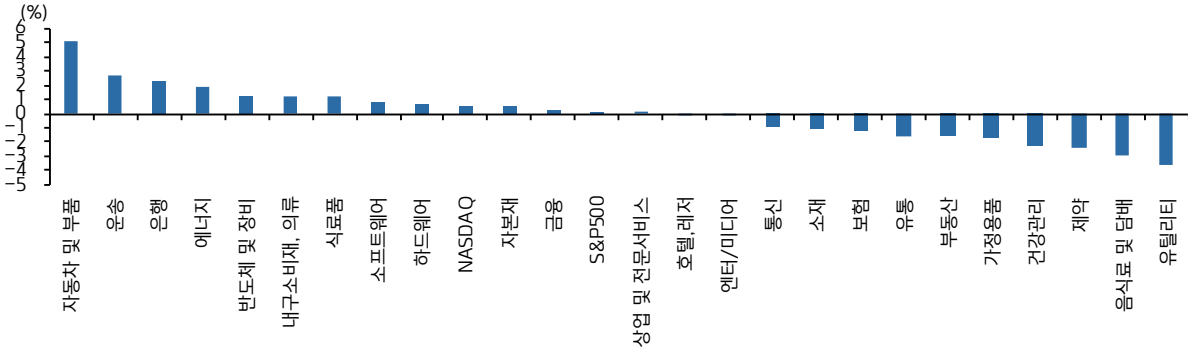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